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활자 연구

## A Study of Hangul Printing Types in the Collection of NMK

이재정 (Lee, Jae-Jeong)\*

### ◁ 목 차 ▷

1. 머리말	3.1 무신자병용한글목활자
2. 한글금속활자	3.2 후기교서관인서체자병용한글목활자
2.1 한글금속활자의 현황	3.3 오류행실도한글자
2.2 한글금속활자 고증	4. 맺음말
2.3 한글금속활자의 제작시기	<참고문헌>
3. 한글목활자	

### < 초 록 >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선총독부 참서관본실과 조선총독부박물관을 거쳐 들어온 다량의 활자가 소장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 가운데 한글활자를 조사, 분석하여 언제 어떤 책을 찍을 때 사용한 것인지를 고증하고 활자에 명칭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글 금속활자는 대부분 현종 9년(1668) 제작된 戊申字와 함께 사용된 戊申字並用 한글활자로 판명되었다. 이 활자들은 필자가 아는 한 왕실에서 만든 한글 금속활자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활자들이며, 제작시기도 17세기 후반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들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속한다.

목활자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와 함께 사용된 무신자병용한글목활자이다. 이 활자들 가운데는 「續明義錄」, 「諭中外大小臣庶諭音」 등 壬辰字, 丁酉字本과 함께 쓰인 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종류는 정조 6년(1782) 「增修無冤錄諺解」를 찍을 때 사용한 後期校書館印書體字並用 한글활자이다. 세 번째 종류는 정조 21년(1797) 「五倫行實圖」를 간인할 때 初鑄整理字와 함께 사용한 오류행실도한글자이다. 지금까지 오류행실도한글자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왔으나 실제 이 활자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要語 : 국립중앙박물관,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 무신자병용한글목활자, 후기교서관인서체자병용한글활자, 오류행실도한글자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jjlee63@museum.go.kr)

접수일: 2005년 9월 5일 최초심사일: 2005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23일

<ABSTRACT>

National Museum of Korea(NMK) possesses various kinds of printing types which have been taken over from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Museum in 194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ssify and define the Hangul printing types in the collection of NMK.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Hangul metal printing type turns out to be so called 'Hangul metal printing type in combination with Musin character' which has been cast between 1668 and 1695. Among the existing old printing types, it is not only one of earliest metal printing types of Joseon dynasty but also the only Hangul metal printing type.

The 'Hangul wood printing type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includes 'Hangul wood printing type in combination with Musin character'. It has also been used to print *Sokmyeonguirokeonhae* and *Yujungoedaesosinseoyuneum* together with Imjin character and Jeongyu character. The second one is 'Hangul wood printing type in combination with Hugigyoseogwaninseoche character' which has been used in the printing of *Jungsumuwonrokenhae* in 1782. The third one is 'Hangul wood printing type in combination with Chozujeongli character' which has been used with Chozujeongli character. It has been caved for the printing of *Oryunhaengsildo* in 1795-1797. So we can call it 'Oryunhaengsildohangul character'. This printing type has been regarded as not existing. However, this article reveals its existence for the first time.

Key word : National Museum of Korea, Hangul metal printing type in combination with Musin character, Hangul wood printing type in combination with Musin character, Hangul wood printing type in combination with Hugigyoseogwaninseoche character, Oryunhaengsildohangul character

## 1.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朝鮮總督府 參事官分室에서 朝鮮總督府 博物館을 거쳐 들어온 다량의 활자가 소장되어 있다. 이 활자들은 대부분 조선후기 왕실에서 御製書나 御定書를 간행할 때 사용했던 활자들이다. 지금까지 이 활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지고<sup>1)</sup> 일부 전시도 이루어졌으며 漢字에 대해서는 실체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 하지만 한글 활자의 경우는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고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활자를 소개하고 언제 어떤 책을 찍을 때 사용한 것인지를 고증하여 이들 활자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 2. 한글 금속활자

조선총독부 참서관분실은 李王職에서 인수한 활자를 분류할 때 한글 활자를 諺文字로 명명하고 이를 금속제와 목제 두 가지 재질로 분류하였으며, 크기에 따라 다시 諺文字 大字, 諺文字 小字로 구분하였다.<sup>2)</sup> 이러한 분류는 재질과 크기에 따른 단순한 분류일 뿐 실제로 그 속에 어떤 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그 활자의 명칭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한글 금속활자를 여러 측면에서 고증하여 한글 금속활자의 실체를 밝히려 한다.

### 2.1 한글 금속활자의 현황

금속활자의 경우에는 참서관분실에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들어올 당시 대

1)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제29집(2004.12), 311-343.

2) 조선총독부중추원편, 『朝鮮舊貫制度調査事業概要』(京城: 中樞院, 1938), 40-54; 이재정, 앞의 논문 참조.



<표 2> 한글금속활자 대자의 크기와 무게

	가로 (cm)	세로 (cm)	전체높이(cm)	글씨제의높이 (cm)	두께 (cm) <sup>3)</sup>	무게 (g)
고	1.2	1.2	0.6	0.44	0.12	3.61
더	1.3	1.2	0.73	0.56	0.22	5.53
이	1.1	1.1	0.465	0.375	0.16	2.86
이	1.2	1.3	0.71	0.51	0.29	5.76
뜰	1.3	1.2	0.57	0.49	0.13	4.47
잡	1.2	1.3	0.655	0.47	0.35	6.55
쪽	1.2	1.3	0.67	0.48	0.36	6.73
태	1.2	1.3	0.64	0.5	0.235	4.5

<표 3> 한글금속활자 소자의 크기와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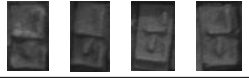

	가로 (cm)	세로 (cm)	전체높이(cm)	글씨제의높이 (cm)	두께 (cm)	무게 (g)
듀	0.7	1.2	0.74	0.56	0.44	3.49
드	0.7	1.2	0.74	0.55	0.34	3.43
더	0.6	1.1	0.59	0.45	0.2	2.0
뎨	0.7	1.1	0.7	0.47	0.38	3.08
뎡	0.7	1.3	0.635	0.45	0.19	2.56
사	0.8	1.2	0.72	0.535	0.275	3.52
장	0.7	1.3	0.725	0.475	0.35	3.78
차	0.6	1.1	0.65	0.48	0.275	2.26
저	0.8	1.3	0.64	0.49	0.4	3.76
즈	0.7	1.2	0.78	0.62	0.31	3.23
즈	0.7	1.2	0.75	0.61	0.33	3.59
즈	0.6	1.0	0.65	0.545	0.255	2.01
징	0.8	1.3	0.66	0.48	0.35	3.81
칙	0.7	1.4	0.6	0.45	0.19	3.47
칙	0.8	1.3	0.485	0.4	0.23	2.93
컨	0.6	1.1	0.46	0.44	0.29	2.17
큐	0.9	1.3	0.72	0.5	0.32	3.10
태	0.6	1.2	0.63	0.49	0.27	2.10
툼	0.7	1.1	0.65	0.55	0.28	2.82
해	0.7	1.1	0.66	0.46	0.25	2.12
회	0.7	1.3	0.62	0.44	0.33	3.03
홍	0.8	1.4	0.7	0.46	0.3	4.29
형	0.8	1.3	0.76	0.69	0.55	5.15
호	0.6	1.2	0.59	0.42	0.31	2.45
후	0.8	1.3	0.71	0.55	0.41	4.25
형	0.6	1.2	0.65	0.45	0.32	2.48
형	0.6	1.2	0.64	0.5	0.27	2.89

3) 활자 두께는 활자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터널모양으로 파인 부분을 제외한 수치이다. 따라서 전체 높이에서 두께를 빼면 터널 높이 산출이 가능하다.

이 활자들의 크기와 무게, 글자 모양 등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활자의 크기 및 글자의 크기와 형태가 비교적 균일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활자이다. ② 글씨체는 한자의 해서체와 같이 반듯한 정자체이며 가로서선은 오른쪽 끝이 약간 올라가고 세로서선은 윗부분이 꺾어지고 끝부분이 가늘다. ③ 대자는 거의 정사각형 틀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며 전반적으로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공간을 좌우, 상하로 반분하여 왼쪽은 초성, 오른쪽은 중성에 배분하였고, 초중중성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공간을 상하로 반분하여 위쪽은 초성과 중성에, 아래쪽은 중성에 배분하였다. 소자는 직사각형의 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초중중성의 배분 방식은 대자와 유사하다.4)(그림 1-6 참조) ④ ‘·’와 함께 쓰인 초성 ‘ㄱ’은 중성에 쓰일 때와 같은 형태, 세로줄기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형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표 4 참조) ⑤ 초성합용병서로는 ‘ㄸ’, ‘ㅃ’, ‘ㄸ’, ‘ㅃ’ 등이 있다. ⑥ 7중성법과 8중성법이 혼용

<표 4> 특징적인 글자들

	활자실물
‘·’와 함께 쓰인 ㄱ	
는	
혹	

4) 한글 서예의 글씨체 변화과정상 창제 초기 자료와 선조시대까지의 자료를 종합하면 모든 글자를 같은 크기의 공간으로 하였고,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공간을 좌우, 상하로 반분하여 왼쪽은 초성, 오른쪽은 중성에 배분하였고, 초중중성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공간을 상하로 반분하여 위쪽은 초성과 중성에 아래쪽은 중성에 배분하였다. 즉 음운체계에 따라 공간배분을 일정하게 고정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배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즉 세로로 긴 글자나 반대로 가로가 더 긴 글자의 경우 이러한 공간 배분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중기 이후에는 음운체계에 따른 공간배분에서 한글의 조형체계에 알맞은 형태로 변화해 간다.(<http://www.cnu.ac.kr/~spvirus> 참조 한글서예 글씨체의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중앙박물관 소장 금속활자는 음운체계에 따른 공간배분에서 조형체계에 맞는 공간배분으로 변화하는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한글 자형의 시각적 변화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03)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형태 양자의 상대적인 크기와 위치 변화를 통해 한글자체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중앙박물관 소장활자는 이 방식에 비추어보았을 때 17-18세기 한글자체의 특징과 가장 부합한다

되고 있다.(표 1 참조) ⑦ 소자 ‘혹’은 초성 ‘ㅎ’과 중성 ‘기’의 일직선을 이룬 형태이다. ⑧ 소자 ‘논’은 ‘·’의 형태가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깝다.(표 4 참조)



<그림 1> 중앙박물관 소장 한글금속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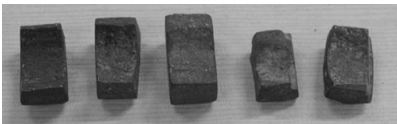
<그림 2> 한글금속활자대자 앞면



<그림 3> 한글금속활자대자 뒷면



<그림 4> 한글금속활자소자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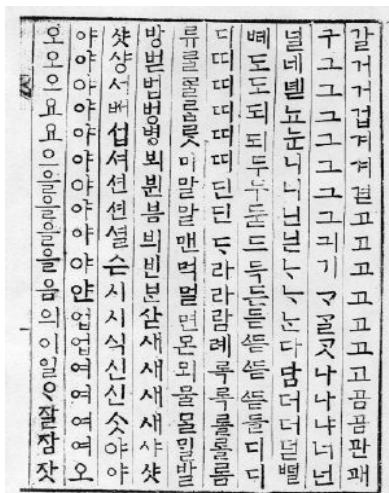
<그림 5> 한글금속활자소자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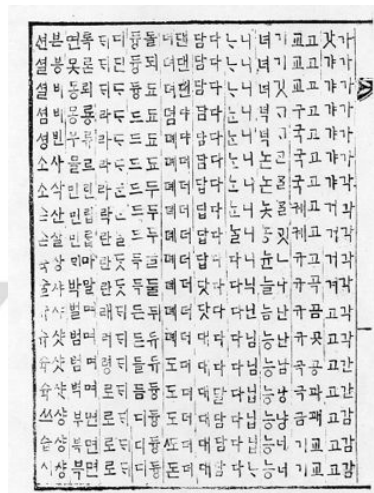
<그림 6> 한글 금속활자소자 측면

### 2.2 한글 금속활자 고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하 소장) 한글 금속활자들의 정확한 명칭 및 제작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명칭과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한글 활자본들과 이 활자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조선총독부에서 활자를 정리한 후 대표적인 활자들 즉 [鐵字], [整理字], [韓構字], [實錄字], [衛夫人字], [諺文字] 등을 표본으로 만들어 관계방면에 분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sup>5)</sup> 그 인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朝鮮活字見本帖」(한고조 95-1)이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다(그림 7-8 참조).



<그림 7> 조선활자견본첩의 언문자대자



<그림 8> 조선활자견본첩의 언문자소자

여기서 [諺文字]에 해당하는 것이 한글금속활자라 생각되어 그 글자와 소장 한글 금속활자를 비교해본 결과 양자가 일치하였다. 따라서 「朝鮮活字見本帖」 [諺文字]항에 나온 글자들과 임진왜란 이후 왕실이나 정부에서 간인한 대표적

5) 庄司淺水, 『印刷文化史』(東京:印刷學會出版部, 昭和 32), 67-68.

인 한글활자본 즉 언해본들을 비교하였다.<sup>6)</sup> 시기를 임진왜란 이후로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왕실 또는 국가에서 발행한 도서로 한정하든 까닭은 첫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전에 사용되던 활자들은 거의 소실되어 이후 새로 활자를 제작하여 편찬사업을 시행했다는 점, 둘째 소장 활자는 校書館과 奎章閣에서 보유하고 있던 활자들로 왕실이나 국가에서 발행한 서적을 인쇄할 때 사용한 것이라는 점<sup>7)</sup>, 셋째 앞서 언급한 소장 활자의 특징 ②③④가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한글 자체의 특징이라는 점(주 4 참조) 등을 고려한 때문이다.

비교 결과 소장 한글 금속활자와 가장 가까운 활자는 무신자병용한글활자, 임진자병용한글활자, 정유자병용한글활자임을 알 수 있었다.<sup>8)</sup>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은 이 세 활자의 재질이 나무라는 것이었고,<sup>9)</sup> 따라서 소장 한글 금속활자가 이들 세 활자와 일치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sup>10)</sup> 하지만 이 세 활자로 간행한 서적들에 보이는 글자와 소장 금속활자를 몇 가지 확인해본 결과 양자에서 동일하거나 같은 자체인 것들이 발견되었다.

본고에서는 양자를 보다 상세히 대조하여 소장 한글 금속활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 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래 6종의 서적<sup>11)</sup>과 소장 활자로 찍은 「朝鮮活字見本帖」을 비교하여 양자에서 동일하거나 같은 글씨체인 것을

6) 임란 이후의 대표적인 한글활자와 그 인본은 천혜봉, 「한국서지학」(서울: 민음사, 2002), 512-544를 근거로 원종자,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 정리자 등을 택하였다.

7) 이재정, 앞의 논문 참조.

8)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는 모두 갑인자계열의 활자로 무신자는 4주갑인자, 임진자는 5주갑인자, 정유자는 6주갑인자이다. 무신자병용한글활자, 임진자병용한글활자, 정유자병용한글활자는 각각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로 서적을 간행할 때 함께 사용한 한글활자를 일컫는다.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글씨체이다. 하지만 세 가지 병용한글활자의 글씨체는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완전히 별개인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 병용한글활자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함께 쓰인 한자 활자의 명칭에 따라 막연히 구분되어 왔다.

9) 천혜봉, 앞의 책 526-534.

10) 한국도서관학연구회편저, 「한국고인쇄자료전시도록」(서울: 선문출판사, 1976), 39에서는 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를 정유자병용한글활자로 소개하였지만 이는 중앙박물관 소장 衛夫人字를 정유자로 보고 한글활자도 이에 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막연히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11)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서적의 청구기호를 명기한다.

확인하였다.(표 5 참조)

- ① 「大學諺解」(무신자본: 일산 고 1238-18): 康熙 34년(숙종 21: 1695) 내사가 있어 그 이전에 간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詩經諺解」(무신자본: 한고조 4-1): 숙종 30년(1704) 이전 간인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 ③ 「小學諺解」(무신자본: 일산 고 1256-12): 乾隆 9년(영조 20년 1744) 내사기
- ④ 「大學栗谷先生諺解」(무신자본: 한고조 09가-6): 崇禎 3년 己巳春(1749) 芸閣活字를 얻어 찍었다는 洪啓禧의 기록이 있다.
- ⑤ 「續明義錄諺解」(임진자본: 일산 고 2156-7): 정조 2년(1778) 간행(「日省錄」 정조 2년(1778) 5월 12일 참조)
- ⑥ 「諭中外大小臣庶綸音」(정유자본: 일산 고 6022-30) 책 마지막에 乾隆 47년(정조 7년: 1783) 12월 29일이라는 발행기록이 있다.

<표 5> 「朝鮮活字見本帖」과 6종 諺解本の 동일 활자

見本帖	大解	詩解	小解	大學栗谷諺解	明解	綸音	出典 <sup>13)</sup>
고		고	고				「詩解」 권 3 17 우8/「小解」 凡例 3 우:7
고	고						「大解」 1 좌:10
그				그			「大學栗谷諺解」 4 우:8
마			마				「小解」 권1 1 우:4
골			골	골			「小解」 序 2 좌:10/「大學栗谷諺解」 5 우:10
우		우					「詩解」 권4 23 좌:10

12) 천혜봉, 앞의 책, 529에 古山齋 소장본으로 숙종 30년(1704) 내사기록이 있는 무신자본용 한글자로 찍은 「詩經諺解」를 소개하고 있다.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판단되므로 이 역시 숙종 30년 이전 간인한 것으로 보았다.

13) 「朝鮮活字見本帖」은 「見本帖」, 「大學諺解」, 「詩經諺解」, 「小學諺解」는 각각 「大解」, 「詩解」, 「小解」로 「大學栗谷先生諺解」는 「大學栗谷諺解」, 「續明義錄諺解」는 「明解」,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은 「綸音」으로 약칭하였다.

見本站	大解	詩解	小解	大學栗谷諺解	明解	繪音	出典
눈		눈		눈			「詩解」 권3 17우:9 「大學栗谷諺解」 13우:4
니				니			「大學栗谷諺解」 14우:8
니				니			「大學栗谷諺解」 13우:6
누				누			「大學栗谷諺解」 3우:2
다			다				「小解」 序 4우:8
맘		맘	맘				「詩解」 권 1 16우:9/「小解」 권 2 65좌:8
더	더		더		더		「大解」 7우:5/「小解」 題辭 4 좌:4/「明解」 권1 3좌:7
덜	덜		덜				「大解」 7우:5/「小解」 題辭 5 우:3
도	도		도	도			「大解」 7우:1/「小解」 凡例 3우 4/「大學栗谷諺解」 14좌:3
드			드				「小解」 凡例 1좌:2
디				디			「大學栗谷諺解」 14우:7
띠			띠				「小解」 凡例 2좌:90
띠			띠				「小解」 題辭 3좌:5
라				라	라		「大學栗谷諺解」 1우:7/ 繪 音 1우:2
라					라		「繪音」 8우:8
를		를					「詩解」 권 3 12좌:2
마		마					「詩解」 권 3 12좌:2
말			말		말		「小解」 題辭 5우:7/「明解」 권 1 12우:6
말	말		말				「大解」 9좌:6/「小解」 권 67 우:2

見本站	大解	詩解	小解	大學栗谷 諺解	明解	繪音	出典
먹	먹	먹					「大解」15우:6/「詩解」권110 좌:7
몬				몬	몬		「大學栗谷諺解」2좌:3/「明 解」권1 12좌:6
발			발				「小解」題辭 3좌:4
번			번				「小解」序 3좌:2
새	새						「大解」5우:6
섭		섭					「詩解」 권3 17우:9
시			시	시			「小解」序 4우:5/「大學栗谷 諺解」13좌:3
신			신				「小解」序 3좌:7
야			야	야	야	야	「小解」題辭 4좌:5/「大學栗谷 諺解」6우:10 /「明解」4 좌7 / 「繪音」2우:1
야			야	야	야	야	「小解」書題 3우:4/「大學栗谷 諺解」14좌:2/「明解」5좌:1/ 「繪音」4좌:6
야				야	야	야	「大學栗谷諺解」11우:8 /「明 解」5우:4/「繪音」12 좌4
얀		얀		얀			「詩解」권4 3우:2/「大學栗谷 諺解」7우:4
업				업			「大學栗谷諺解」5좌:9
여		여		여			「詩解」권1 8좌:2/「大學栗谷 諺解」23우:1
여				여	여	여	「大學栗谷諺解」27우:6 「明解」6우:9/「繪音」13좌:3
여					여		「明解」권 1 4좌:6
오				오			「大學栗谷諺解」24우:5
우				우			「大學栗谷諺解」27좌:5

見本帖	大解	詩解	小解	大學栗谷 諺解	明解	繪音	出典
							「大學栗谷諺解」27 우:7 「明解」권1 18우:3/「繪音」1우:2
							「小解」序3우:2/「明解」권1 3우:4
							「詩解」 권 1 8좌:7
							「詩解」 권 1 3우:1
							「繪音」6좌:2

이상 6종 언해본을 통해 소장 한글 금속활자와 같거나 글씨체가 동일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자체가 같거나 유사한 것이 다수 있으며 小字 가운데도 동일한 것이 있으나 생략하였다.<sup>14)</sup> <표 5>를 통해 소장 한글 금속활자는 전체적으로 무신자본에 쓰인 글자와 일치하지만 ‘더’, ‘라’, ‘야’, ‘으’, ‘이’, ‘여’, ‘말’, ‘몬’ 등처럼 무신자본, 임진자본 또는 정유자본에 걸쳐서 사용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그렇다면 이들 활자는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 중 어디에 쓰인 것일까?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에 쓰인 것일까?

이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소장 한글 금속활자 가운데 종성이 ‘ㄷ’으로 끝나는 글자와 ‘ㅅ’으로 끝나는 글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표 1 참조) 「續明義錄諺解」나 「諭中外大小臣庶繪音」, 이 보다 조금 뒤인 1794년 교서관에서 찍은 「增修無冤錄諺解」에는 종성이 ‘ㄷ’으로 끝나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sup>16)</sup>

14) 예를 들어 대자 ‘젯’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孟子諺解」(고조-09-리3) 권 12 30우:9의 ‘이젯 켜울’의 ‘젯’과 동일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 책에 대한 해제에는 무신자본이며 영조년간 간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필자 역시 이 책은 무신자본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간행년대는 영조년간보다 앞선 무신자 초기본으로 추정된다. 소장 금속활자 ‘젯’은 「孟子栗谷先生諺解」(고조-1239-123) 권 10 74우:3 ‘齊의 疆호물 젯는 나’의 ‘젯’과 동일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해제에는 이 책을 초주갑인자본이라 하였으나 무신자본으로 추정된다.

15) 일일이 다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표 5> 「朝鮮活字見本帖」의 글자들 가운데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에 공통으로 사용된 활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보다 이전 무신자본으로 일컬어지는 「詩經諺解」, 「大學諺解」, 「大學栗谷先生諺解」, 「小學諺解」 등에서는 양자가 혼용되는 예가 많이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詩經諺解」를 보면 ‘긔’과 ‘긔’, ‘긔’과 ‘긔’이 혼용되고 있다. 역시 무신자본으로 생각되는 「中庸諺解」(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조 09-나1)에서도 ‘땃’과 ‘땃’이 혼용된다. 동일한 표현을 할 때 무신자본 내에서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엿’의 표기를 보면 「大學諺解」 5책:3에는 ‘넛’, 「大學栗谷先生諺解」 5책:3도 ‘넛’이라 하였으나 영조 20년(1744) 내사기가 있는 「小學諺解」권 2 15:우에는 ‘넛’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글 표기법상 16세기 후반부터 종성에 사용되는 ‘ㅅ’과 ‘ㄷ’이 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양자가 혼용되다가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점차 ‘ㅅ’으로 통일되어 갔다.<sup>17)</sup>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은 무신자로 간행한 언해본들에 비해 시기가 늦은 탓에 종성이 모두 ‘ㅅ’으로 통일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소장 한글 금속활자들은 적어도 「續明義錄諺解」나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이 간인되기 이전에 주조된 무신자병용한글활자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sup>18)</sup> 실제 「朝鮮活字見本帖」에 나오는 종성이 ‘ㄷ’인 글자 ‘땃’, ‘땃’은 무신자본에 나오는 글자와 동일한 형태이다.

소자 ‘느’의 ‘·’가 수직에 가깝다는 점을 소장 금속활자의 특징으로 언급하였는데, 분석대상 무신자 언해본의 ‘느’은 ‘·’가 모두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깝다. 반면 「續明義錄諺解」나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는 여러 형태가 섞여 있다.

16) 정재영 등, 「정조대의 한글문헌」(서울: 문헌과 해석사, 2000), 24에서 「敬信錄諺解」를 설명하면서 종성의 ‘ㄷ’이 한결같이 ‘ㅅ’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정조대 여타 한글문헌도 종성의 ‘ㄷ’이 ‘ㅅ’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조대에 편찬된 한글문헌의 공통적 특성으로 생각된다.

17) 박병채, 「국어발달사」(서울: 세영사, 1992), 277-278.

18) 19세기 이후에도 ‘ㅅ’ ‘ㄷ’이 혼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리적으로는 임진자, 정유자 또는 그 이후의 활자로도 볼 수 있으나, 정조대에 나온 한글문헌에는 ‘ㄷ’ 종성이 보이지 않으며, 정조 이후 왕실에서 간행한 언해본의 한글활자는 소장 활자와 글씨체가 다르므로 소장활자를 무신자본으로 판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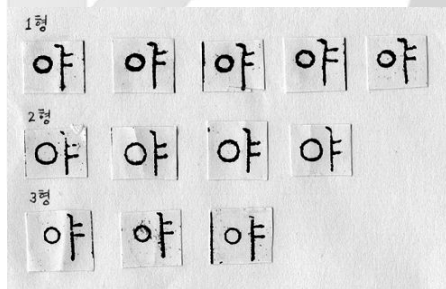
소자 ‘혹’의 경우는 한자 ‘學’을 표기할 때 한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大學諺解」와 「大學栗谷先生諺解」 등의 ‘學’은 ‘혹’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 형태가 ‘ㅎ’의 ‘ㅇ’과 받침 ‘ㄱ’이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소장 활자와 형태가 같다. 「續明義錄諺解」나 「諭中外大小臣庶綸音」 등에서는 소자 ‘혹’이 쓰이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으나 순조 연간 편찬된 목판본 「大學諺解」의 ‘學’은 ‘혹’으로 표기되지 않았고 ‘학’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타 목판본 「大學諺解」에서도 ‘혹’의 형태가 무신자본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혹’의 표기법 역시 무신자병용한글활자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 곳에서 공통으로 쓰인 글자인 ‘야’, ‘여’, ‘오’, ‘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소장 활자 중 가장 수가 많은 ‘야’자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朝鮮活字見本帖」에 인쇄되어 있는 12개의 ‘야’자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그림 9) 이 글자들과 6종 언해본의 ‘야’자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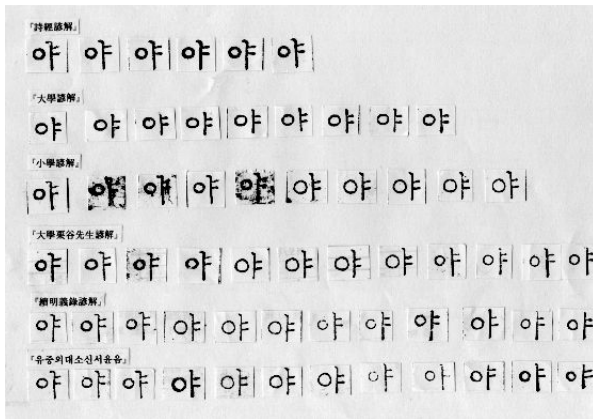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비슷한 시기에 간인된 「詩經諺解」와 「大學諺解」의 ‘야’자의 모양이 다르다.
- ② 「詩經諺解」<sup>19)</sup>, 「大學栗谷先生諺解」, 「小學諺解」, 「續明義錄諺解」, 「諭中外



〈그림 9〉 「朝鮮活字見本帖」의 ‘야’자

19) 「詩經諺解」의 ‘야’자는 권 1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권 3 24좌의 ‘야’의 경우처럼 「朝鮮活字見本帖」에 나와 있는 2형과 동일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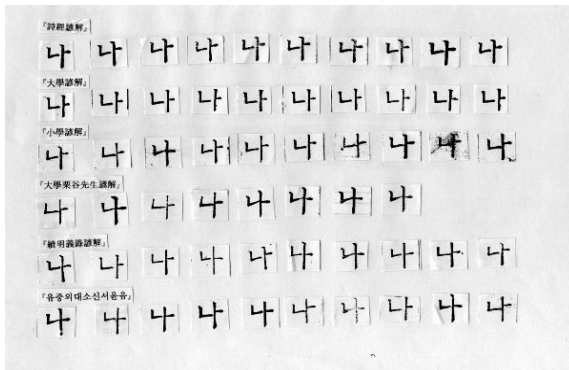
〈그림 10〉 6종 언해본의 ‘야’자 비교

大小臣庶綸音에 소장 활자와 동일한 ‘야’자가 포함되어 있다. ③ 「詩經諺解」와 「大學諺解」, 「大學栗谷先生諺解」, 「小學諺解」의 ‘야’자는 글씨체가 하나에서 셋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續明義錄諺解」나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는 여러 가지 글씨체가 섞여 있다.

한편 6종 언해본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詩經諺解」와 「大學諺解」 등 무신자를 주조한 초기에 간인한 언해본에서는 ‘야’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글자가 하나 또는 둘 정도의 동일한 글자체로 통일되어 있으며 인쇄상태가 깨끗하다. 하지만 「大學栗谷先生諺解」나 「小學諺解」의 경우, 즉 무신자 후기본에서는 ‘야’자 등 몇몇 글자는 글자체가 통일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여러 글자체가 혼용되는 경우, 글씨가 조악한 경우들도 꽤 발견된다. 「續明義錄諺解」나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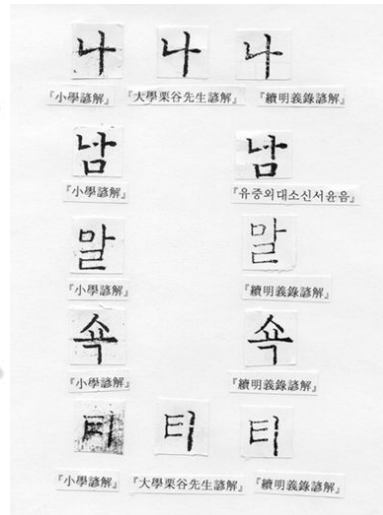
‘나’자를 예로 들어보자.(그림 11)

「詩經諺解」, 「大學諺解」의 ‘나’자는 글자 모양이 일정하다. 하지만 「小學諺解」의 ‘나’자, 「大學栗谷先生諺解」의 ‘나’자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續明義錄諺解」,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11> 6종 언해본의 '나'자 비교

또한 무신자본인 「大學栗谷先生諺解」나 「小學諺解」에 쓰인 한글 중에는 임진자본인 「續明義錄諺解」나 정유자본인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 쓰인 한글과 같거나 비슷한 체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小學諺解」 「小學諺解序」 4우:5, 「大學栗谷先生諺解」 5좌:4, 「續明義錄諺解」 권 1 6우:9의 '나'자는 동일한 글씨체이다. 「小學諺解」 「小學書題 1」 3우:5 「續明義錄諺解」 권 1 1우:1의 '속', 「小學諺解」 「小學諺解序」 4우:2, 「諭中外大小臣庶綸音」 2좌:9의 '남', 「小學諺解」 「小學諺解序」 4좌:3 「續明義錄諺解」 권 1 9우:3의 '말', 「小學諺解」 「小學諺解序」 4좌:2 「大學栗谷先生諺解」 16우:6, 「續明義錄諺解」 권 1 3우:3 '티' 역시 그러한 경우이다. (그림 12) 한자의 경우는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가 모두 갑인자를 字本으로 하여 같은 글씨체이기 때문에 세 가지 글씨체가



<그림 12>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본의 동일한 글씨체들

동일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글의 경우는 무신자와 임진자, 정유자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글씨체의 異同을 파악함으로써 세 활자의 연관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 관찰을 통해 다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글자체가 동일하고 반듯한 것은 금속활자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동일한 틀을 이용하여 글자를 주물하여 글씨의 모양이 거의 일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詩經諺解」와 「大學諺解」에 쓰인 ‘야’자의 형태가 서로 다른 것은 자주 쓰이는 글자의 경우 서로 다른 틀을 사용하여 몇 개의 자체를 만들어 글자를 주조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신자 초기본에서는 이처럼 금속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글씨체가 가지런하고 인쇄상태도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大學栗谷先生諺解」와 「小學諺解」가 「詩經諺解」와 「大學諺解」에 비해 같은 글자에 여러 가지 글씨체가 나타나며 인쇄상태가 깨끗하지 않은 까닭은, 무신자를 많이 사용한 후기에 간인된 관계로 마모가 많이 진행된 금속활자를 사용하거나 나무로 보주한 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20)</sup>

무신자병용한글활자는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도 계속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소개한 ‘나’, ‘남’, ‘말’, ‘속’, ‘티’ 등이 무신자본과 임진자본, 정유자본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것은<sup>21)</sup> 무신자로 간인한 언해본에서 사용한 한글 활자들을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그 글자체를 그대로 원용했기 때문이다.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서 동일한 글자에 다양한 글씨체가 나타나는 것은 목활자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이 두 책에 쓰인 한글 활자는 목활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 금속활자를 오래 써서 마멸되면 나무를 이용하여 보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무신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서적이 많았으므로 무신자 초기 인본은 활자가 정교하여 인쇄가 깨끗하지만, 후기의 인본에는 마멸된 활자와 나무 보주가 많아진다.(천혜봉, 앞의 책, 291;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서울: 탐구당, 1974), 305-308.

21) 무신자본과 임진자본, 정유자본 가운데 글자의 모양이 동일하거나 같은 자체로 보이는 것은 이 5개 글자 외에도 더 많은 예가 있으나 여기서는 이 5개 글자만 소개하였다.

### 2.3 한글 금속활자의 제작시기

이들 금속활자에 대한 주조 기록이 없어 언제 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6종 언해본 중 내사기가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 「大學諺解」로 내사한 해가 1695년이다. 따라서 소장 활자는 적어도 1695년 이전에는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大學諺解」에 사용된 한자 활자가 무신자이며 무신자는 현종 9년(1668)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sup>22)</sup> 소장 활자는 1668년과 1695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활자가 모두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소장 활자 대자 ‘쏟’의 경우를 보자. ‘쏟’은 현대어 ‘뜻(忖)’을 의미하는데 분석 대상 언해본에서는 ‘뜻’의 표기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大學諺解」 9좌:6, 11우:6, 같은 무신자본으로 생각되는 「中庸諺解」 23우:8에서는 ‘뿔’으로 표기하고 있다. 「大學栗谷先生諺解」 10좌:7에서는 ‘뿔’으로 표기되었고, 「小學諺解」에서는 ‘뿔’(序4우:2, 序4좌:1, 권 1 15우:8, 권 4우:5, 권 2 5좌:3 권 2 5좌:5 등) ‘뿔’(권 1 6좌:7) ‘쏟’(序 3좌:1, 권 2 19우:9, 권 2 28좌:7, 권 2 30우:2)이 혼용되고 있으며, 정조 6년(1782) 교서관에서 간인한 「增修無冤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論音」 등에서는 ‘뿔’으로 표기되어 있다. ‘뿔’에서 ‘쏟’을 거쳐 ‘뜻’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소장 활자 ‘쏟’이 「小學諺解」에 비로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활자는 「大學諺解」, 「中庸諺解」를 간행할 시기에는 주조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표기에 혼용이 일어난 예는 ‘긫’과 ‘긫’, ‘긫’에서도 볼 수 있다. 숙종 연간



간인된 「詩經諺解」의 경우 ‘긫’(권 4 23좌:10)을 표기할 때는 초성의 ‘긫’이 종성과 달리 세로 줄기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으나 ‘긫’(권 1 22좌:2)의 경우는 종성과 같은 형태이다.(그림 13)<sup>23)</sup> 「大學諺解」에 사용된

<그림 13> 「詩經諺解」의 ‘긫’과 ‘긫’

22) 무신자의 간행에 대해서는 「顯宗改修實錄」 9년 8월 辛未 참조.

‘굴’은 ‘ㄱ’의 형태가 종성에 사용된 것과 같은 형태이지만, 「小學諺解」, 「大學栗谷先生諺解」에 보이는 ‘굴’은 ‘ㄱ’의 형태가 「大學諺解」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것, ‘ㄱ’의 세로 줄기가 구부러진 것이 혼용되고 있는데(그림 14) 소장 금속활자 중에는 후자와 같은 형태의 ‘굴’자가 있다.

‘·’와 함께 쓰인 ‘ㄱ’은 훈민정음을 만든 초기에는 초성과 종성이 같은 형태이다가 17세기 초부터 세로 줄기가 왼쪽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하며 19세기말까지 두 가지 자형이 병존하였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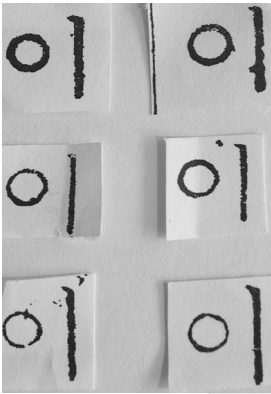
이를 통해 볼 때 같은 무신자본이라도 시기에 따

라 한글 표기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굴’의 경우 새로운 형태(‘ㄱ’의 세로 줄기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는 「大學諺解」를 간인할 때는 주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자도 「詩經諺解」, 「大學諺解」에서 사용된 것과 「大學栗谷先生諺解」에 사용된 것은 모양에 차이가 있다. 즉 「詩經諺解」, 「大學諺解」에 사용된 것이 자음이 크고 모음이 짧은 반면 「大學栗谷先生諺解」의 ‘이’자는 자음이 작고 모음이 길며 자음과 모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그림 15)<sup>25)</sup> 전체적으로 모두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자 처럼 많이 사용하는 글자는 애초 여러 개를 만든 후 한정된 활자만 쓰다가 다 닳아지면 새 활자를 썼거나 아니면, 모자라는 글자를



<그림 14> 「大學諺解」(위)  
「小學諺解」(중간) 「大學栗谷先生諺解」(아래)의 ‘굴’자



<그림 15> 「詩經諺解」(위) 「大學諺解」(중간) 「大學栗谷先生諺解」(아래)의 ‘이’자

23) 「大學諺解」의 ‘굴’도 두 가지 형태로 표기되었다.

24) 홍윤표, “한글 자형의 표준화에 대하여,” 『국어생활』 18(1989), 12-13.

25) 「大學栗谷先生諺解」에 사용된 ‘이’자에는 「詩經諺解」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양, 그 밖에 목활자로 보이는 여러 자체가 두루 포함되어 있다.

새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한글 금속활자는 무신자병용자라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활자 제작 하한은 「續明義錄諺解」나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을 간행하기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서는 무신자본과 비교해 볼 때 글씨체가 많이 바뀌어 붓글씨적 성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목활자가 주를 이룬다. 또 동일한 글자를 무신자본과 비교했을 때 모양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을 간인할 당시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한 경우는 있어도, 무신자병용한글활자와 같은 체의 금속활자를 새로 주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sup>26)</sup>

이상의 분석을 통해 소장 한글 금속활자는 '무신자병용한글활자'임을 알 수 있다. 종전에 무신자병용한글활자, 임진자병용한글활자, 정유자병용한글활자는 함께 사용된 한자 활자의 명칭에 따라 막연하게 구분되어 왔으며, 이 세 종류를 모두 목활자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세 종류 활자는 별개의 명칭을 부여해야 할 만큼 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다. 즉 임진자병용한글활자와 정유자병용한글활자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임진자와 정유자로 찍은 언해본에서도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를 포함해서 무신자병용한글활자를 보주한 목활자를 혼용하였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그 때 그 때 목활자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글자의 형태가 점차 변해가고 금속활자에서 출발하여 점차 목활자의 비중이 높아져갔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26) 임진자, 정유자로 찍은 책에 병용한 한글활자와 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를 비교해 보면 임진자, 정유자병용 한글활자 쪽이 전반적으로 가로세로획이 가늘고 자모음의 공간배분도 일정치 않은 반면, 소장 한글 금속활자는 공간배분이 보다 일정한 특성을 지닌다.(물론 동일한 형태의 글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27) 김진평,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한글조형연구」(「고김진평교수추모논문집발간위원회」, 118-133)에서는 한글활자체 변천의 시기를 구분하면서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병용한글활자를 후3기(정형기)의 후3체로 명명하여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자체로 파악하였다. 후2기(교서관기)에는 원종체와 김좌명체를 설정하였는데 김진평이 말하는 김좌

지금까지 관련 학계에서는 무신자(漢字活字)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왔으며 무신자병용한글자 역시 현존하지 않으리라 생각해왔다. 따라서 소장 한글 금속활자를 현존하는 임진자 또는 정유자와 연결시켜 막연히 임진자병용한글활자 또는 정유자병용한글활자로 짐작하거나,<sup>28)</sup> 이 두 활자가 목활자라고 판단하고 중앙박물관 소장 금속활자를 제주정리자병용한글활자로 파악한 경우도 있었다.<sup>29)</sup> 하지만 지금까지 고증한 바와 같이 무신자병용 한글활자는 교서관에 보관되어 활용되다가, 교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다른 활자들(예를 들어 후술하는 한글목활자<sup>2</sup>형, 연각목활자 등)<sup>30)</sup>과 함께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인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3. 한글 목활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목활자는 목제 諺文字 大字와 小字로만 구분되어 왔으나 그 내부에는 크기와 종류가 다양한 활자들이 혼재되어 있어 어떤 활자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먼저 이 활자들을 활자의 형태와 크기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명체가 곧 무신자병용한글활자체이므로 동일한 활자체를 두 시기에 중복설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무신자병용한글활자의 글자체가 목활자 보주 과정에서 변해가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28) 한국도서관학회편저, 앞의 책, 39.

29) 천혜봉, 앞의 책 538. 하지만 제주정리자병용한글활자와 소장 한글금속활자는 글씨체가 완전히 다르다. 제주정리자병용한글활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ㅇ’의 형태에서 드러난다. 즉 ‘ㅇ’의 원 위에 꼭지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19세기 말에 나타나는 특징이다(홍윤표, 앞의 논문, 13 참조) 소장 한글금속활자를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으므로 제주정리자병용한글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활자 수량과 조선총독부박물관 시절 기록상의 활자수량을 비교해 볼 때 소장활자의 2/3 이상이 제주정리자병용한글활자와는 형태가 다르며, 나머지 활자 역시 현재 파악한 활자와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추정된다.

30) 무신자는 守禦廳에서 주조하였으나 이후 교서관에서 보관하였다.(김두중, 앞의 책, 303) 연각활자에 대해서는 이재정,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 調査 連刻木活字”를 중심으로, 『제 7회 동원학술대회발표요지』,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4), 13-25 참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각목활자 중에는 무신자본인 「明紀編年」 「春秋經傳集解」에 사용한 연각목활자가 포함되어 있다.

글자의 크기와 글자체를 파악하여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개 세 종류의 활자로 구분되었다. 이 중 일군의 활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관상 확연히 구분되며(한글목활자 3형) 나머지 활자들은 활자의 외형은 비슷하지만 크기와 글자체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한글목활자 1형, 2형) 이하 이 세 종류의 활자에 대해 소개하고 각각의 인본을 밝혀 활자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 3.1 무신자병용한글목활자(한글목활자 1형)

소장 한글 목활자 가운데 1형과 2형은 얼핏 보면 구분하기 힘들고 분류하기도 힘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활자의 크기와 글자체에 차이가 드러난다.



<그림 16> '갯'자 비교



<그림 17> '그'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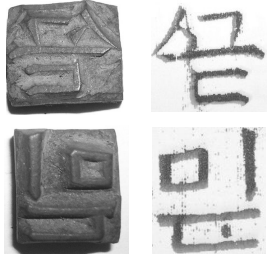
<그림 18> '고'자 비교



<그림 19> '만'자 비교

1형이 2형에 비해 크고 가로 세로 획이 더 굵으며, 필서체적 요소가 더 많이 드러난다. 또한 자음과 모음의 공간배치에 있어 2형은 1형에 비해 음운체계보다 조형체계를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주 4 참조)

두 가지 글씨체의 차이를 몇 가지 예를 통해 설명해 보자.(그림 16-19참조)<sup>31)</sup>  
 ‘갓’자의 경우 아래 줄 2형 목활자는 종성 ‘ㅅ’이 크며 획이 가늘다. ‘고’나 ‘그’와 같은 글자들은 2형이 상대적으로 세로로 긴 형태이며, ‘만’자는 자음과 모음의 비례 면에서 2형이 1형에 비해 더 짜임새가 있다.<sup>32)</sup>



<그림 20> <그림 21>

앞서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를 고증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신자로 찍은 언해본에 사용된 한글 활자는 후기로 갈수록 나무로 보주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 1형 한글 목활자 중에는 무신자로 찍은 언해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통의 활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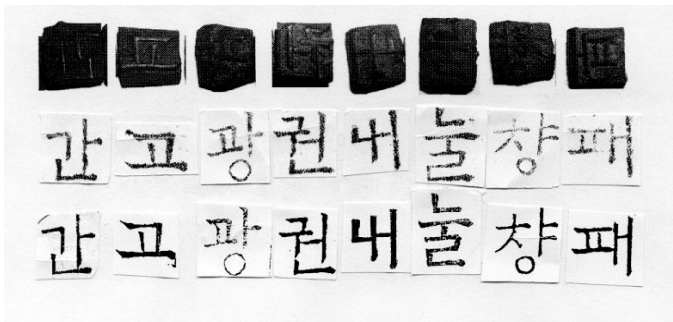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한글목활자 1형에 속하는 활자들 가운데는 종성이 ‘ㄷ’으로 끝나는 활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33)</sup> 정조 연간 왕실에서 펴낸 『明義錄諺解』 『諭中外大小臣庶綸音』 『增修無冤錄諺解』(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한고조 34-4) 등에는 ‘ㄷ’종성으로 끝나는 예가 없다. 하지만 무신자로 간행한 『詩經諺解』 『大學諺解』 『小學諺解』 등에는 종성이 ‘ㄷ’으로 끝나는 예가 다수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실제 ‘쏟’은 『小學諺解』 序 3우:3에 쓰인 글자와 동일하며 ‘민’도 『小學諺解』 권 1 15우:3에 쓰인 것과 같은 활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0, 21 참조) 따라서 이들 활자는 무신자본에 쓰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한글목활자 1형에는 각각 임진자, 정유자본인 『續明義錄諺解』 『諭中外大小臣庶綸音』에 쓰인 활자와 자체가 거의 동일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31) 그림 윗줄은 한글목활자 1형, 아래 줄은 한글목활자 2형이다

32) 김진평, 앞의 논문, 130.

33) 현재 파악된 것은 곧(4개) ‘곧’ ‘곧’ ‘갓’ ‘넙’ ‘닐’ ‘뭉’ ‘물’ ‘랄’ ‘뭉(3개)’ ‘맘’ ‘뭉’ ‘민’ 『小學諺解』 59-3) ‘뭉(2개)’ ‘뭉’ ‘뭉’ ‘썬’ ‘옴’ ‘옴(2개)’ ‘옴’ ‘옴’ ‘옴(4개)’ ‘옴(小學諺解) 5-4) ‘옴(2개)’ ‘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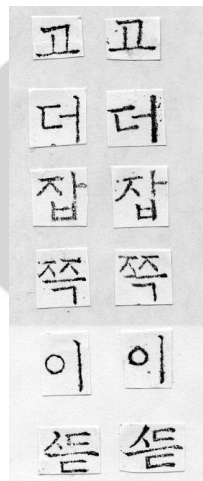
<그림 22> 한글목활자 1형(위줄), 각 활자로 찍은 글자들(가운데줄), 「續明義錄諺解」, 「論中外大小臣庶繪音」 동일한 글자들(아래줄)

<그림 22>에 몇 가지 예를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한글목활자1형에는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에 쓰인 한글활자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글금속활자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에서 쓰인 한글 활자 가운데 동일하거나 같은 글자체가 쓰인 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임진자병용한글활자와 정유자병용한글활자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임진자와 정유자로 찍은 언해본에서도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를 포함해서 무신자병용한글활자를 보주한 목활자를 혼용하였으며, 모자라는 부분은 그 때 그 때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 또 이 과정에서 글자의 형태가 점차 변해가고 금속활자에서 출발하여 점차 목활자의 비중이 높아져갔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글 목활자 1형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한글목활자 1형에는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에 사용한 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한글목활자 1형 가운데는 <그림 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앙박물관에 현존하는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와 동일한 글씨체들이 발견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소장 한글목



<그림 23> 금속활자(좌)와 목활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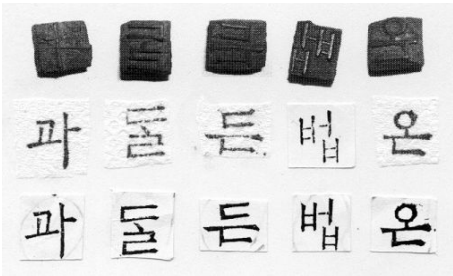
활자 소자 가운데 목활자 대자 1형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활자들이 있다. 이 활자들은 글자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며 한자의 음을 다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34)</sup> 「諭中外大小臣庶綸音」 「續明義錄諺解」 등 임진자와 정유자병용한글활자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에는 소자가 한정된 글자만 사용되고 있다.<sup>35)</sup> 두 책에서 사용된 한글 소자 외의 목활자 소자들은 무신자로 찍은 언해본에 사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목활자 소자 1형 역시 무신자본, 임진자본, 정유자본에 쓰인 활자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로 간행한 언해본 가운데 한글목활자를 주로 사용한 서적은 임진자, 정유자로 간행한 언해본 즉 「續明義錄諺解」이나 「諭中外大小臣庶綸音」 등이지만, 무신자로 간행한 언해본도 후기에 간행한 것은 한글 목활자의 사용 빈도가 높다. 소장 목활자 1형에는 이 세 종류 언해본에 사용된 활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 소장 목활자 1형의 명칭은 ‘무신자병용한글목활자’로 명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3.2 후기교서관인서체자병용한글활자(한글목활자 2형)

한글목활자 2형은 1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가로 세로 획이 가늘고 시원시원하다. 또 붓글씨적 성격이 생략되어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인서체적 성격이 강하다.<sup>36)</sup> 중성이 전반적으로 커서 자모의 공간배분에 있어 조형체계를 더 중시하였다. 2형에 속하는 활자들과 임진왜란 이후 간행된 대표적인 언해본들의 한글 활자를 비교해 본 결과 상당수 글자들이 정조 6년(1782) 간인한 「增修無冤錄諺解」<sup>37)</sup>의 글자와 자체가 같거나 동일함을 발견하였다. 몇 가지 대표

34) ‘덩’ ‘정’ ‘턱’ ‘뚝’ 등과 같은 글자들이다. <표 1>의 한글금속활자 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5) 필자가 「續明義錄諺解」와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의 협주로 쓰인 한글소자들과 중앙박물관 소장 한글목활자 소자1형을 비교한 결과 소장 활자의 종류가 훨씬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36) 김진평, 앞의 논문, 130.  
37) 정조 14년(1790) 「增修無冤錄大全」을 정조의 명에 의해 徐有隣 등이 언해한 법의학서이며 3권 2책이다. 1792년 간행하였다. 법의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며 18세기말 국어 연구에도



<그림 24> 한글목활자 2형(위줄), 각 활자로 찍은 글자들(가운데줄), 「增修無冤錄諺解」의 동일한 글자들(아래줄)

적인 글자를 비교해보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sup>38)</sup>(그림 24참조)

「增修無冤錄諺解」에 쓰인 활자는 일반적으로 후기 교서관인 서체자라고 명명하는 것이다.<sup>39)</sup> 교서관인서체자의 재질에 대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단 한글 활자는 목활자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활자를 만든 정확한 년대는 알 수 없으나 경종 초(1723년 이후) 무쇠로 주조한 전기교서관인서체자를 개주하여 새로 인서체자를 만들었다고 하니,<sup>40)</sup> 경종초기와 「增修無冤錄諺解」가 간인된 정조 6년(1782) 사이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활자 역시 교서관에 보관되다가 총독부참사관을 거쳐 박물관으로 들어왔으리라고 생각된다.

### 3.3 오류행실도한글활자(한글목활자 3형)



<그림 25> 한글목활자3형의 앞면, 옆면, 뒷면

한글목활자 3형은 외관상 다른 활자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 활자들은 직육면체를 이루며 바닥도 평평하다.(그림 25)글자의 모양도 붓으로 쓴 듯한 독특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다른 활자들과 구분된다. 이 활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떤 활자인

귀중한 자료이다.

- 38) 이 안에 다른 종류의 활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세밀한 분류를 통해 보강해야 할 것이다.
- 39) 인조 말(17세기 중엽) 조정의 인쇄업무가 훈련도감에서 다시 교서관으로 돌아오자 훈련도감에서 활자제작과 인쇄기술을 경험한 장인들이 교서관으로 옮겨 인쇄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후 교서관에서 몇 차례 활자가 제작되었다.
- 40) 천혜봉, 앞의 책 531.



<그림 26> 임진자, 실록자, 정리자, 한구자의 앞면(左)  
 <그림 27> 임진자, 실록자, 정리자, 한구자의 옆면(右)

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필자는 초주정리자와 함께 쓰인 한글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앙박물관 소장 금속활자인 임진자, 실록자, 한구자, 정리자 가운데 정리자는 다른 금속활자들과 달리 측면이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는데, 소장 목활자 3형의 경우 역시 직육면체를 이루고 있다.(그림 26-27 참조) 이는 두

활자가 같은 성격의 활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이다. 활자를 이용하여 조판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측면이 직선인 것들끼리 조판하는 것이 조판에 더 용이하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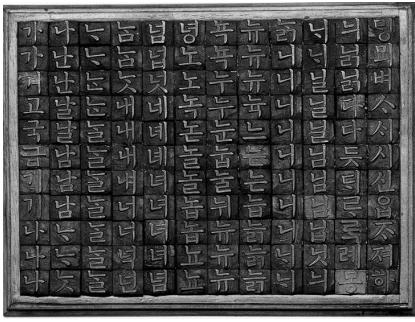
실제로 소장 목활자 3형과 정조 21년(1797) 초주정리자로 찍은 대표적인 책인 『五倫行實圖』<sup>41)</sup>(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일산 고 155-17)에 나오는 한글의 자체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자체임을 알 수 있다.(그림 28-29 참조) 이 활자체는 붓글씨적 성격이 두드러지며 균형이 잡힌 글씨체이다.

오률행실도한글자는 「鑄字所應行節目」에 「五倫行實諺書字」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조 19년(1795) 造成되었고 조성 당시 4,400개였다.<sup>42)</sup> 鄭元容은 「袖香編」에서 철종 8년(1857) 주자소 화재 때 이 활자가 불탄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sup>43)</sup> 지금까지 오률행실도한글자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오률행실도한글자로 판단되는 활자들이 수량은 많지 않지만 확실히 남아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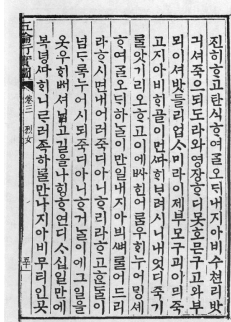
41) 정조 21년(1797) 李秉模 등이 정조의 명에 의해 「삼강행실도」와 「오률행실도」를 합하여 수정, 편찬한 책으로 5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효자, 충신, 열녀 등의 언행을 판화와 함께 실고 이를 언해하였다.

42) 「鑄字所應行節目」 「活字條」.

43) 김두중, 앞의 책, 354에서 재인용. 여기에서는 五倫行實諺書字가 아니라 諺字이며 숫자도 4,605개로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鑄字所應行節目」의 기록과 전체적으로 비교해볼 때 諺字는 오률행실도한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8〉 오륜행실도한글자



〈그림 29〉 오륜행실도한글자로 찍은 「五倫行實圖」

음을 알 수 있다.

오륜행실도한글자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무신자병용한글활자에서 보이는 자체와 같은 자체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한 ‘나’자와 같은 경우이다.(그림 12 참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오륜행실도한글자의 글씨체는 그 이전 단계에 이미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44)</sup>

#### 4. 맺음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글활자는 朝鮮總督府에서 李王職으로부터 인수받은 것으로 금속제 언문자대소자, 목제언문자대소자로만 막연히 일컬어져왔다. 이 활자들의 구체적인 제작시기와 이 활자들을 사용하여 간인한 책들을 밝히기 위하여, 조선후기 간행된 대표적인 언해본들과 소장 활자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한글 금속활자는 대부분 현종 9년(1668) 제작하여 영조 48년(1772) 임진자

44) 김진평, 앞의 논문, 130-131에서는 오륜행실도한글자를 오륜체라 명명하고 교서관기에 완성을 본 궁체의 쓰기법과 한자 명조체 활자의 성격이 조화된 한글 활자체의 정형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여기에서도 오륜체의 원형이 그 이전 시기에 만들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작 이전까지 사용한 무신자와 함께 사용된 무신자병용한글활자로 판명되었다. 종전에 무신자병용한글활자는 목활자로 간주되어 왔으나 필자는 고증을 통해 무신자병용한글활자가 금속활자임을 밝혔다.<sup>45)</sup> 이 활자들은 필자가 아는 한 왕실에서 만든 한글 금속활자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활자들이며,<sup>46)</sup> 제작 시기도 17세기 후반으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금속활자들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속한다.<sup>47)</sup> 이 활자들 속에는 무신자를 주조한 초기에 간인한 서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와 무신자 후기에 간인한 서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활자들이 섞여 있으며, 일부 활자는 임진자, 정유자로 간행한 언해본에도 사용되었다.

목활자의 경우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와 함께 사용된 무신자병용한글목활자이다. 이 목활자 1형 가운데는 「續明義錄諺解」, 「諭中外大小臣庶綸音」 등 임진자, 정유자본에 쓰인 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제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의 언해본에 보이는 한글활자 가운데는 일치하거나 같은 글씨체들이 확인된다. 종전에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로 간행한 언해본에 사용한 한글활자들에 막연히 무신자병용한글활자, 임진자병용한글활자, 정유자병용한글활자라는 명칭을 붙여 왔다. 하지만 이 세 종류의 한글활자는 완전히 구분되기보다 연속되어 있으며, 처음에 금속으로 주조하였다가 이후 점차 목활자로 보주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종류는 정조 6년(1782) 「增修無冤錄諺解」를 찍을 때 사용한 후기고서관인서체자병용한글활자이다. 이 활자의 제작 년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

45) 본고에서 이 활자의 명칭을 기존 학계의 명명 방식에 따라 무신자병용한글활자라 하였으나 이는 한자 활자의 명칭에 따라 명명한 것이다. 추후 이 활자의 자본 등의 연구를 통해 한글활자의 특성에 걸맞는 독자적 이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6) 민간에서도 한글금속활자를 주조했는지, 현존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민간에서 한글활자를 금속으로 주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따라서 중앙박물관 소장 한글 금속활자들은 현존하는 유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47) 지금까지 밝혀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속활자는 대부분 18-19세기에 제작한 것이다. 현종실록자는 현종 14년(1673)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19세기에 다시 주조했다는 주장도 있다. 현종실록자가 현종년간 주조되었다 하더라도 무신자병용한글금속활자가 무신자 주조시기인 1668년 함께 주조되었다면 현종실록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주조한 것이 된다

후기교서관인서체자가 경종 초(1723년 이후)에 제작되었으므로 병용한글활자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종류는 정조 19년(1795) 주조한 초주정리자와 함께 정조 21년(1797) 「五倫行實圖」 인쇄에 사용한 오류행실도한글자이다. 지금까지 사료에 의거하여 오류행실도한글자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여 왔으나 실제 이 활자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목활자 가운데는 이 세 가지 종류 외에 다른 활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이 부분을 보강하고자 한다. 또한 목활자 소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日省錄」, 正祖 2年 5月 辛未.

「朝鮮王朝實錄」, 顯宗 9年 8월 辛未.

「鑄字所應行節目」, 活字條.

김진평.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한글조형연구」(「고김진평교수추모논문집발간위원회」, 1999). 107-264.

박지연. “한글 자형의 시각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2003.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311-343.

이재정.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活字 調査-連刻木活字를 중심으로.” 「제 7회 동원학술대회발표요지」.(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04). 13-25.

홍윤표. “한글 자형의 표준화에 대하여.” 「국어생활」 18(1989). 2-21.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서울: 탐구당, 1974.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2.

박병채. 「국어발달사」. 서울: 세영사, 1992.

정재영 등. 「정조대의 한글문헌」. 서울: 문헌과 해석사, 2000.

한국도서관학연구회편저. 「한국고인쇄자료전시도록」. 서울: 선문출판사, 1976.

조선총독부중추원편. 「朝鮮舊貫制度調査事業概要」. 京城: 중추원, 1938.

庄司淺水. 「印刷文化史」. 東京: 印刷學會出版部, 1957(昭和 32).

K C I